광주 29개 도로 '혼잡 해결사' 뜬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현장 등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가동
우회로 확보·신호체계 변경 등 추진…상반기 내 시민설명회 개최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도심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대규모 공사에 대비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광주시는 22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1차 회의를 갖고 대규모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와 주요 교통혼잡구간 관리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은 지난해말 행정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시·시의회·자치구·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교통유관기관과 전문가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결정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총괄대응단'과 실무적인 검토와 지원기능을 수행할 '실무추진단'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변화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회가능도로 25개 도로, 중점관리구간 29개 도로 69개 구간에 대한 교통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교통혼잡도가 높은 공사도로 8개 도로 21개 구간, 우회도로 21개 도로 48개 구간 등 중점관리구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중점관리구간에는 차로를 재배분해 도로용량 증대 및 주변 우회도로 최대 확보, 신호체계 변경(필요시 좌회전 금지, 우회도로 방면 녹색시간 확대 등), 유턴구역 최소화 및 P턴 확대,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 등 다양한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P턴은 좌회전 금지구역에 반복적인 우회전 방식을 적용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통 체계다.

시는 또 중점관리구간 29개 도로와 우회가능도로 25개 도로 등에 대해선 시·구 누리집과 구보·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 차량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 밖에도 공사중 교통혼잡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통처리대책 수립하고, 공사기간 교통통제, 부제 시행 검토,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교통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내에 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공사시기와 내용, 교통혼잡 예상구간과 우회도로 안내, 공사 완공시에 기대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대시민설명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공사로 교통혼잡이 불가피하겠지만 공사 중 교통처리 등 종합교통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2개의 공사가 완료되면 광주시의 도시발전과 교통복지 증진 등 시민편의가 대폭 개선되는 만큼 공사기간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개최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면 도로점용 허가, 교통전환 협의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도 올해 시공사 선정 등 사전준비 후 2025년 초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르신들 활기찬 노후 응원합니다" 광주 동구는 22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 굴 작업장 신축·개보수 지원

신축 6억·개보수 2억원…안전·위생적 생굴 생산 기반 확충

전남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굴 작업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굴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업장 신축·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축은 6억원, 개보수는 2억원 한도다.

도는 굴을 전략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양식 기반 조성,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영채 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남이 굴 산업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여수, 고흥 등 11개 시군 735어가에서 4만6000t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힘 광주시당, 공약으로 호남 표심 잡기

총선 공약 개발단 회의…일자리·인공지능 등 6대분야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4·10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해 회의를 열고 총선 준비와 함께 서진 정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의 불모지였던 광주·전남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2일 시당 회의실에서 '광주시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개발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광주시당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하고 광주 8개 지역구별 세부 공약을 검토했다.

광주시당 총선 공약은 6대 분야(경제·일자리, 지역 숙원사업, 인공지능, 미래 신산업, 삶의 질 향상, 교육·문화·관광)와 3개 추진 과제(플랫폼 공약, 지자체 간 상호 연락 가능한 공약, 광주시 특색 공약) 등으로 구성한다.

광주시당 총선 개발단은 민생과 현안 중심으로 중앙당과의 협의를 거쳐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민과 소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공약을 개발·발표할 예정이다. 시당은 총선 공약 개발단에서 마련한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세분화해, 중앙당에 광주시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공약보다 대상이 명확한 공약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과 지역구별 필요 사업 등을 발굴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체감형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당 총선 공약 개발단은 주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지역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공약 개발단은 총선 이후에도 광주시당 정책 개발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구직단념 청년' 사회 진출 지원

최대 350만원…진로탐색·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광주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구직단념 청년 대상으로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부 공모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로 선정돼 국비 8억370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9억15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을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

지난해 광주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166명이 이수했고 이중 65명이 취업과 직업훈련, 일경험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대상은 19~39세로 계속된 취업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취약청년을 포함해 180명이다.

프로그램은 구직청년이 장기적으로 구직과 구직훈련, 취업교육을 포기하는 니트(NEET)청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5주 단기인 '도전'과 15주, 25주 중장기인 '도전+' 과정으로 운영된다.

'도전', '도전+' 과정 모두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도전+' 과정은 지역맞춤형,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심화된 프로그램이 추가 운영된다.

'도전' 과정은 참여수당 50만원이 지급되며, '도전+' 과정은 참여수당과 이수 및 취업 인센티브를 더해 15주 과정은 최대 220만원, 25주 과정은 최대 35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이수 후 취업하면 인센티브를 신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2월부터 사업별 참여자 모집 및 사업에 대한 안내가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과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청년센터' 공식 누리집(www.gjyouthcente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설 성수식품 160종 안전 검사 강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가공식품과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조리식품 30종(튀김식품·전·떡류·식혜 등), 가공식품 20종(한과·두부류·식용류·주류·견과류 등), 수산물 10종(굴비·조기·민어 등),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 100종(배·사과·채소류 등) 등 모두 160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식품별 검사항목은 생선전 등 조리식품은 식중독 원인균, 한과 등 및 식용유지류는 산가(기름의 부패도), 견과류는 총아플라톡신(곰팡이독소), 수산물은 방사능·유해중금속, 과일·채소류는 잔류농약 340종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